

지역 매아리

정읍시, 문화관광해설사

내달 중 전면 순환 배치 실시

정읍시가 내달 1일부터 문화관광해설사를 순환 배치한다.

시는 2019~2020 정읍방문의 해를 맞아 정읍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 동시에 관광해설사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는 해설사의 배치 기간이 평균 7년 임을 감안, 지난 6월 해설사의 간담회를 통해 순환배치의 추진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시는 앞으로 1년 주기로 해설사를 순환 배치해 다양한하고 폭넓은 해설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달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실무수습과정을 거친 뒤 11월 정식배치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관광해설사는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통해 관광객들의 이해를 높이고 폭넓은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일제강점기 태인지역

3·1 독립운동 재조명 '눈길'

3·1 독립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가 최근 정읍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정읍역사문화연구소가 주관한 학술대회는 사계의 권위자인 한양대학교 박찬승 교수(KBS 역사저널 '그날' 메인 출연자)의 '한국 민족운동사와 정읍'이라는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이어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인 김재영 박사의 '태인지역 3·1 독립만세운동의 전개 과정과 그 의의', 한국종교사학회 이사인 안후상 박사의 '일제 식민 통치와 신인종맹 사건', 전북역사교육문화연구소 정원기 선생의 '태인지역의 의병운동' 등이 발표됐다. 마지막으로 태인지역 역사화자인 서혁기 선생이 현장답사와 생생한 증언을 바탕으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태인지역 '김해감씨 가문의 독립운동과 민족운동' 등을 발표했다.

그간 전라북도에서는 기독교계의 학교인 영명학교를 중심으로 전개된 군산 육구의 만세시위를 비롯해 임실 오수 둔덕이씨의 만세시위, 남원 덕포리장 이석기의 만세시위, 전주 서문교회를 중심으로 한 기전과 신흥학교의 만세시위, 두 팔을 잃고도 만세를 외쳤던 익산의 문용기 열사의 만세운동에만 주목해왔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그간 묻혀 있던 태인지역의 독립만세운동과 민족운동을 재조명하고 이를 분석해 관계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정읍=김대환 기자

에너지 자립마을 본격 조성

부안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2년 연속 선정... 국비 8억원 확보

부안군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작년 이어 2년 연속 선정돼 국비 8억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 공공, 상업(산업) 건물 등의 특정지역에 태양광, 태양열 등 2종 이상의 에너지원을 설치하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공모 사업이다.

부안군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공고에 따라 동진면, 계화면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해 한국에너지공단

에 6월 공모신청을 했다. 이후 공개평가 및 현장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총사업비 17억 3000만원 중 국비 8억 3800만원을 확보했으며 2020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부안군은 2회 연속 공모사업 선정으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안군 동진면, 계화면 일원 주택(건물)에 태양광 232개소(698kW), 태양열 25개소(150㎡)가 설치되면 주민들의 전기료 절감효과와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225.8TOE/년), 온실가스 절감효과(464.7tCO2/년)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발맞춰 모두가 참여하고 누리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주민참여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비 4억원을 확보한 2019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현재 계화면 참북리 지역 주택 및 건물 등 116개소에 대해 태양광(열) 발전설비 설치가 추진 중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군민 중심 적극 행정 강조

권익현 부안군수가 군민 정서를 고려하는 군민 중심 적극 행정을 강조했다.



권익현 군수는 19일 열린 주요 간부 회의에서 "군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지역 실정에 맞는 행정을 펼쳐 군민에게 신뢰 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며 "일률적인 법 적용이 아닌 군민의 정서를 고려하는 군민 중심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자"고 당부했다. 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에 얼마 남지 않았다"며 "추석 성수식품 판매업체의 철저한 위생점검을 통해 군민들에게 안전한 추석 성수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권익현 군수는 "문제인 대통령이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대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효과가 분명한 만큼 지자체와 협력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강조했다"며 "우리가 공모 신청한 부안군 가족센터 건립사업 등이 대상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청정한 고창 해풍고추, 그 참맛과 참빛 체험'

23일부터 3일간 공연·비빔밥 잔치·비즈 아트·장떡 부치기 등 다채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오는 23일부터 3일간 해리면 해리복지회관에서 '제23회 고창해풍고추축제'를 연다.

'청정한 고창 해풍고추, 그 참맛과 참빛 체험'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서 재배된 해풍을 맛고 자랑 명품 고추를 소재로 진행된다.

해풍고추는 청정고창 해안일대에서 미네랄과 게르마늄 성분이 풍부한 갯벌 바닷바람을 맞고 자라 병해충에 강하고 포피가 두껍다. 특유의 매콤한 맛과 향을 지니고 있어 예로부터 김장김치에 사용하는 최고의 고추로 알려져 있다.

축제기간에는 고추 직거래 장터를 중점적으로 활성화한다. 유난히 무더웠던 올 여름 내내 농가들이 땅 흘려 재배하여 출하한 좋은 품질의 고추를 군민과 관광객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기념식 행사로는 식전 공연이 있으며 군민 화합을 위해 대략 500명분 비빔밥 잔치를 마련해 행사에 참가한 관광객들과 함께 비빔밥을 나눠먹는 시간이 진행된다.

체험 프로그램으로는 어린이들도 비교적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비즈아트를 활용한 고추모양 열쇠고리 만들기, 건강가원 금줄 만들기, 해풍고추 많이 담기, 고추 무게 맞추기, 고추 꼭지 빨리 따

고창군이 오는 23일부터 3일간 해리면 해리복지회관에서 '제23회 고창해풍고추축제'를 연다.

기, 해풍고추를 이용한 떡볶이 나눌고 장떡 부치기 등이 진행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해풍고추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만나는 군민화합의 장으로

만들고,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축제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황토 섞인 자연 친화적 길 걸어보아요"

정읍시, 내장산 국립공원 탐방로 우드칩 황토길 시범 조성

내장산 국립공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숲을 더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탐방로가 새롭게 개통됐다.

정읍시는 내장산 국립공원 탐방로 100m 구간에 우드칩 황토길을 시범 조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우드칩 황토길은 시멘트를 섞지 않고 편백 나무를 잘게 만든 우드칩과 황토, 경화제만을 혼합해 만든 자연 친화적 길이다.

일반 황토 포장과는 다르게 탄성력과 흡수성이 좋아 걸기에 불편함이 없어 가볍게 걸으며 환상적인 단풍길을 즐길 수 있다.

특히 친환경 휴 포장과 목재 자원으로 재활용된 우드칩 포장 등으로 어린아들에게 도심 속 소규모 생태교육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시는 내장산을 많이 찾는 가을 단풍철에 시민들과 관광객의 반응을 살피고 눈이 많이 내리는 추운 겨울철을 보내며 우드칩 황토길의 강도와 내구성 등을 최종적으로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이후 2020년부터 전라북도 제2차 대표 관광지 육성사업비를 지원받아 약 1.8km의 내장산 국립공원 탐방로 전 구간에 걸쳐 조성할 계획이다.

유진섭 시장은 "자연 친화적인 우드칩 황토길을 따라 걸으면서 지친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시범단계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친해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한결 편안한 탐방길 기능을 갖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대비 토론회 개최

부안군은 19일 군청 회의실에서 새만금 기본계획(MP) 변경에 대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근호 부군수 주재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1단계 새만금 사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0년 이후 새만금개발청의 MP 변경 추진에 따라 현안 및 신규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MP에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과·소장들을 대상으로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총 21건의 현안 및 신규사업이 MP 변경 요구와 신규사업 발굴로 구분해 제시됐다.

특히 새만금 폐기물처리시설 예정지가 현재 부안군 마을에 인접해 있어 주민에게 영향을 비교적 덜 주도록 적정거리를 확보해 설치할 필요가 있는

점, 새만금 재생에너지사업 시 생계터전을 상실한 부안군민을 위해 사업용량 추가 확보해야 하는 점, 장산배수지 건립사업에 국비를 조속히 확보해 2023년 부안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캠퍼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하는 점 등 시급한 현안을 위해 부서장들이 머리를 맞댔다.

부안군은 조만간 사업을 확정해 사회단체와 함께 전북도, 새만금개발청 등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부안군과 새만금개발청은 국립 새만금박물관 준공시점에 맞춰 새만금 시점부에 랜드마크 조형물을 공동으로 건립할 것을 합의하고 추진 중이다.

/부안=김석진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청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청와대 만찬주!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GIFT SET 1세 | 750ml 2ea, 잔 2ea/16% | GIFT SET 2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 GIFT SET 3세 | 750ml 1ea/12% | GIFT SET 4세 | 500ml 2ea, 잔 2ea/12% | GIFT SET 5세 | 375ml 5ea/13% | GIFT SET 6세 | 500ml 향병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 GIFT SET 7세 | 375ml 2ea/13% | TEL : 063-584-9900 www.gangsanwine.com